

정쟁으로 중단된 국회 정상화 및 민생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4월 24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
고픈상인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국회의원 박주민
(더불어 민주당)
- 발언 :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 여는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 : 박지호 맘상모 운영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팀장

[기자회견문]

여·야는 정쟁으로 중단된 국회를 정상화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개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라!

4월 임시국회가 시작한지 3주가 지났지만 여·야간 정쟁으로 상임위가 줄줄이 파행되는 등 사실상 국회가 중단되었다. 민생입법 등 현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린 채 당리당락을 위한 정쟁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료 인상으로 영업활동의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버티고 있다. 그러나 안정적인 영업권 확보와 상가내몰림을 방지하는 법개정 요구는 정치판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정치적 공방으로 본연의 역할을 방치하는 국회를 규탄하며, 정쟁으로 중단된 국회를 즉각 정상화하고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민생입법 즉각 처리하라!

2016년 5월 20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상가임차인의 부당한 내몰림을 방지하기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개정안」 이다수 발의되었다. 정부도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등 상가법 개정을 연내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4월 임시국회는 상가법개정 처리를 위한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또 다시 정쟁에 의한 국회 공전사태로 민생입법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서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한계에 왔다.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을 중단하고 지체 없이 국회를 정상화하여 민생법안 처리 등 국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당리당락으로 4월 임시국회를 무산시켜서는 안된다.

4월 임시국회는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을 시작으로 김기식 금융감독위원장 논란과 민주당원 인터넷 댓글 조작 의혹 등에 대해 여당과 야당이 대치하면서 파행운영되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댓글 조작 논란에 대해 특검 실시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이번 사건을 핑계로 4월 임시국회를 무산시키고 지방선거까지 끌고가겠다는 당리당락에 의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고 필요하면 특검을 실시하면 된다.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으로 4월 임시국회를 무산시켜서는 안된다. 여당도 야당의 주장을 정치적 공세로만 규정해 대립각을 세우기 보다는 국회정상화를 위해 타협안을 제시하는 등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2018년 4월 24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국회의원 박주민(더불어 민주당)